

통일옥수수 가꾸기 2016년도 계획(예정안)

통일옥수수 취지



통일옥수수는 옥수수를 심고 가꾸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키운 옥수수를 수확해 나누어 먹으면서 통일 후 식량문제를 생각해 보고,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북한어린이를 돕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옥수수 일반 재배

옥수수는 통상 90일 정도 키우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간식용 풋옥수수, 즉 찰옥수수의 재배시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하단을 보면 충남 이남에서 가을 재배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2기작을 하는데 봄에는 조기재배로 가을에는 노지재배 2기에 걸쳐 재배를 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조기 재배는 이른 봄에 모종을 만들어 4월초에 밭에 옮겨 심어 6월 말에 시장에 내는데, 조기 출하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후 7월초에 노지 재배를 통해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판매하는데, 이때도 비교적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표 3-3〉 재배유형별 파종 시기, 옮겨 심는 시기 및 수확 시기

재배 유형	재배 방법	파종 시기	옮겨 심는 시기	수확 시기	재배가능지역
극조기재배	비닐하우스재배	2월 상순 ~중순	2월 하순 ~3월 상순	5월 하순 ~6월 상·중순	충남 이남
조기재배	비닐터널재배	3월 상순 ~중순	4월 상순	6월 중순 ~하순	충남 이남
반촉성재배	비닐피복재배	4월 상순	직 파	7월 상순 ~중순	충남 이남
보통직파재배	적기무피복재배	4월 중순	직 파	7월 하순 ~8월 상순	전국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재배	6월 상순	직 파	9월 상순 ~중순	전국
가을재배	노지재배	7월 상순 ~중순	직 파	9월 하순 ~10월 상순	충남 이남

통일옥수수 재배

학교 텃밭에서 옥수수를 심을 경우 4월 중순이나 말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수확하게 되는데, 학교 방학이 아니라면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이 다친 시점에 옥수수를 수확하여 나눔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6월 말이나 7월 초순에 심어서 9월 말이나 10월초에 수확하여 행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가을운동회나 축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나눔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내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옥수수의 취지를 알리고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통일 후 식량자급이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기획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공터 활용 방안



통일옥수수 재배는 텃밭이 없는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울타리 주변의 풀이 무성한 곳, 학교 화단 둘레 등 빈 공간 어느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것이 옥수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장소에 밀거름을 충분히 주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면 큰 병충해 없이도 잘 자라고 큰 키 식물이라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기 좋습니다.

특히 넝쿨콩을 같이 심으면 서로 공생하여 잘 자라고 비바람의 피해도 막을 수 있으며 학교 담장의 미화에도 일익을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기장테두리진딧물 피해(줄기)-출처 농촌진흥청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옥수수를 심으면 한창 더운 날씨에 병충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 성장기에 해충발생이 적다면 방학 중 해충피해는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웃거름을 주고, 향학이 끝나자마자 웃거름을 준다면 옥수수 성장이나 병충해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실의 옥수수 재배와 해충관리 참조)

통일옥수수 홈페이지(tongilcorn.org) 활용방안



참여 학교와 사회텃밭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려 서로 공유하고 활동 내용과 사진자료들을 올려 텃밭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참여 학교와 사회텃밭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연계행사를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참여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모아진 수익금을 정당하게 사용토록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통일옥수수 가꾸기 운동을 지역사회의 통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통일옥수수 농장 연계방안



경기도 연천군 대광리(신탄리역 인근)에 개장할 통일옥수수 농장은 토종옥수수를 비롯한 토종종자와 채소를 재배하고 채종하는 농장으로 참여학교 및 사회텃밭 참여자에게 자연농법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재배방법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대광리 지역은 DMZ인근 지역으로 6.25 격전지였던 고대산 보개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상징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탄리역은 백마고지역이 개장되기 전까지 경원선의 종착역이었으며 강남에서 신탄리까지 전철과 연계하면 강남 지역에서도 약 2시간30분에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선의 남북 개통이 곧 통일의 실제라는 점에서 DMZ를 따라 달리는 경원선은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도 통일옥수수와 이어진 상징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중 개장 예정)